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오늘은 10월 나라주일. 예배 후 나라별 모임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세요.
- 1부 예배는 11시 45분에 시작합니다.
- Sommerzeit 해제: 다음 주일
- 매일성경 11,12월호 받아가세요.
- 바이블12: 10월 22일(수) 21시 30분 온라인, 예언서2
- 교사, 찬양대원, 멀티미디어부원 등 섬김이를 찾습니다.
- 출타: 단주현/이태하
- 귀국: 이정윤
- 생일축하: 민지음, 주아름, 박하린

◆말씀일기 일정

일/대하29:1-19 월/대하29:20-36 화/대하30:1-12 수/대하30:13-27
목/대하31:1-21 금/대하32:1-23 토/대하32:24-33 일/대하33:1-25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53독

◆ 예배위원 안내 ◆

	10월 19일	10월 26일	11월 2일	11월 9일
예배기도	백윤정	서영지	최수정	서정인
안내위원	예배부			
봉헌위원	김수경 민경웅		장혜진 백윤정	
애찬위원	밥상 하나	밥상 둘	밥상 셋	밥상 넷



“네 자신을 연단하라”(딤후 4:7)



주일예배 11:45 Teestube 소망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소망방



담임/ 손교훈 목사 Pastor Dr.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4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21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420장	다	함	께
기도/Gebet		백	윤	정 권사
찬양/Chor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	양	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역대하 29:1-19	인	도	자
설교/Predigt	성결의 기쁨	손	교	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14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손	교	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

IBAN: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역대하28:16-27 ‘착각하면 안 된다’ ◀

믿음의 심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하스처럼 된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니 각양 원수로부터 침략을 당한다. 아람이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괴롭히며(5-7), 에돔이 괴롭힌다(17). 힘 있는 앓수르에게 도움을 요청(16)하지만 그들마저 유다를 짓밟는다(20-21).

더욱 불쌍한 것은 아하스가 계속되는 패배 속에서 “곤고할 때에”(22)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 전쟁에도 지고 최후의 신앙까지 잃은 것이다. 아람에게 지고 나니, 아람을 이기게 한 신에게 제사하여 도움을 받아보려 하지만, 착각이었다. 그 신은 아하스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23).

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병들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그게 승리로 가는 길이다. 오늘의 승패를 넘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다. 죽음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승리의 길을 보여 주셨다.

혹시라도 착각하면 안 된다. 재물도 명예도, 지식도 사람도 그 무엇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 나를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며 마음 속으로 조용한 찬양이 흐른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 지난 주 봉헌 내역(10월 12일-10월 18일) ◀

십일조	감사 및 목적헌금
서연주, 단주현, 김수경, 손교훈	무명1, 김한진(장학)
총액 1.145,90유로 = 545,90(예배당) + 600,00(온라인)	